

# 1980년 이후의 노년기가족 연구: 성과와 과제\*

## Research on Families in Later Life since 1980: Products and Prospects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申和容

Dept. of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ist Prof.: Shin, Hwa-Yong

###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내용       |             |

### 〈Abstract〉

This paper is a review and assessment of 112 articles on families in later life from 5 journals published during 1980 and 1995.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social support network, caregiving attitudes and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stress of the aged, and welfare system for the aged are the major areas examined.

The review indicates that this area of research in quantity has increased rapidly since 1985. Relationships between aged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focusing on caregiving attitudes, behavior and stresse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among the children, and adjustment/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are dominantly investigated.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are non-theoretical and descriptive in nature and the influences of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sex, health, economic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on dependent variables are widely investigated.

Future research questions and issues under the sub-areas of families in later life is provided. Further,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orks

\* 본 연구는 1995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on families in later life in general are provide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가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년기가족 연구는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주제의 다양성, 이론적 틀의 적용 및 검증, 그리고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사용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연구량의 증가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지 못 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변화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연구 업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성과와 제한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년기 연구를 종합·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대개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거나(김태현, 1980, 1989), 시기에 따르는 노년학 관련 학회현황 및 교육현황을 보고하거나(구자순, 1985), 혹은 사회노년학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구자순, 1992). 구자순(1988)은 전반적인 노인문제 연구 현황을 고찰하고 그 제한점을 밝히며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논문은 사회노년학 전 분야의 논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지도 이미 8년이나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80년 이후 발표된 노년기 연구 중 노년기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그 성과를 밝힘과 동시에 현재까지의 노년기가족 연구가 갖는 이론적·방법론적인 제한점과 함께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년기가족은 가족생활주기 중 마지막 단계이다. 공세권 등(1987)은 막내 자녀의 결혼 이후로, 유영주(1984)는 막내자녀가 결혼한 이후부터인 57세 이후를 노년기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년기가족에 관한 연구는 가족생활주기나 막내자녀의 혼인상태 등에 대

한 언급이 없이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부모나 조부모가 살아있는 성인자녀나 손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부모 혹은 조부모가 포함된 모든 연구를 노년기가족 연구로 분류하였다.

### II. 연구방법

본 논문은 지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가족학논집, 한국노년학, 한국사회학 등 5개 학회지에 게재된 노년기가족 관련 논문 112편<sup>1)</sup>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학회발표논문 및 저서들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것은 본 논문의 제한점이다.

발표된 논문을 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8편,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19편,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69편, 그리고 1995년 한 해에 16편이 발표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년기가족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연구주제에 따라 분석해 보면 노년기가족 연구의 이론이나 방법론 및 고찰과 관련된 것이 10편, 노년기의 가족관계 23편, 사회적 지원망 8편, 부양의식 및 행동 10편, 부양스트레스 13편, 노인의 적응이나 생활만족도 17편, 노인의 스트레스 9편, 노인 복지 8편, 그리고 기타 14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노년기가족의 성인자녀-노부모관계나 부양과 관련된 부양의식과 부양스트레스, 그리고 노인들의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 III. 연구내용

#### 1. 노년기가족 연구의 이론과 시각

노년기가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탐색적 수준

〈표 1〉 년도별·주제별 노년기 가족 연구 경향

주제별 \ 년도별	1980 - 1984	1985 - 1989	1990 - 1994	1995	합 계
이론과 방법론 및 고찰	1	3	5	1	10
가족관계	1	1	18	3	23
사회적 지원망	-	-	7	1	8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	-	6	3	1	10
부양스트레스	-	-	8	5	13
노인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	3	3	9	2	17
노인스트레스	-	3	6	-	9
노인복지	1	1	4	2	8
기 타	2	2	9	1	14
합 계	8	19	69	16	112

에 머물고 있으며 특정한 이론의 적용을 시도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많은 연구가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기술하거나 성인자녀-노부모관계, 부양의식, 혹은 부양부담감이나 노인들의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자녀와의 동거여부,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 건강이나 성격특성인 성역할태도, 통제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가족관계적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연구경향은 이론적 틀이 없는 기술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는 특정이론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던 이론은 사회교환이론으로(김순기·유영주, 1994; 박재홍, 1991; 윤순덕·한경혜, 1994; 이숙현·손승영, 1992; 전길양·김태현, 1993; 조병은·신화용, 1992)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인자녀-노부모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교환이론이 유용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이외에 서병숙·오경숙(1990)과 원혜중(1994) 및 임춘희·옥선화(1994)는 노인들의 활동정도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활동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활동이론은 구자순(1988)의 논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이론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활동의 상호작용적인 측면, 즉 활동의 중요도 및 의미, 혹은 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종단적인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는 자원이론의 개념을 암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로 성인자녀-노부모관계(신효식·서병숙, 1992; 장선주·서병숙, 1990; 전길양·김태현, 1993; 최정혜·김태현, 1991), 노인의 의사결정능력(모선희, 1991; 송주은·문숙재, 1993; 여운영·문숙재, 1992), 손자녀-조부모 관계(박경란, 1994; 서동인, 1989)등에서 자원이론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데, 자원이 많은 노인이 성인자녀나 손자녀와 좋

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가족내의 의사결정권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자원의 소유 정도가 노인들의 가족관계나 가족내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원이론의 적용이 지지되고 있다.

한편, 부양스트레스나 노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이론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소로써 부양자의 자원이나 사회적 지지를(이신숙·서병숙, 1993; 한은주·김태현, 1994; 송현애·이정덕, 1995; 민무숙, 1995),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소로써 노인들이 소유한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자원의 유용성을 밝히고 있다(윤현희·김명자, 1994; 최정혜, 1990).

그러나 노년기가족 연구에 있어 구체적인 이론적 개념의 적용이나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적용이 시도된 사회교환이론이나 활동이론, 자원이론 및 스트레스이론 이외에 연령계층이론, 생애과정관점, 사회적 외해모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체계이론 혹은 여권론적인 관점 등 한국의 노년기가족 연구에 상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론이나 개념의 틀을 적용·검증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 2. 노년기가족 연구의 연구방법

대부분의 노년기가족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거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노인들을 인터뷰한 설문지 조사연구이다. 이러한 설문지 조사연구는 제한된 시간과 비용으로 노년기가족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제한점도 갖는다. 예를 들어 김현희·윤가현(1994)은 연구자의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즉, 면접에 의한 방법과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설문지법을 비교한 결과, 질문지에 직접 응답한 성인자녀는 면접에 응답한 성인자녀보다 노부모의 인지기능과 IADL을 낮게 보고하고,

자신들의 우울증이나 부양긴장감은 높게 지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에 관한 상황을 외부인에게 노출시키기를 기피하는 문화에서는 조사방법에 따라 연구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을 연구자가 충분히 인식하여 자신들의 연구에 적합한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김태현·전길양(1995)은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치매노인가족의 부양경험을 조사하였으며, 오찬옥·이연숙(1992)은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이연숙·박정아·오찬옥(1994)과 이연숙·변혜경·오찬옥(1994)은 소집단 workshop 패널을 통한 탐색적 사례연구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년기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있다(한경란, 1994; 홍숙자, 1995; 홍숙자 외, 1995). 그러나 아직까지는 절대다수의 연구가 설문지조사와 횡단적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참여관찰법이나 비구조화된 면접법, 그리고 사례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과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측정도구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외국의 척도를 번안한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타당화 작업을 위해 대부분의 연구가 안면타당도를 사용하고,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근거한 신뢰도 값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려는 시도도 진행되었다. 이신숙·서병숙(1993)은 총 16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부양자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척도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구성요소(construct) 선정에 있어 이론적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규탁(1994)은 현대의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우리의 고유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연구업적의 축적을 위해서는 개념의 명료화와 함께 측정도구의 표준화 작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가족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대부분 편의적 표본 추출방식에 의해 표집되었으며,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표본의 크기는

100에서 800까지 다양하나 200내지 300정도가 가장 많으며, 노인이나 성인자녀, 혹은 손자녀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반적이다. 보다 최근의 연구는 관계의 양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관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유계숙, 1995; 이숙현·손승영, 1992; 조병은 외, 1995). 그러나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없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이나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노년기가족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료분석 방법을 보면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통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 %, 상관계수와  $\chi^2$ , t-test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모형에 따라 회귀분석, 경로분석 혹은 변량분석과 이에 따르는 사후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고급통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가 연구목적이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이론적 개념과 사용된 통계방법의 적합성이 문제시되고 있어 연구목적이나 이론적 개념에 적합한 통계방법의 사용이 요구된다.

### 3. 노년기의 가족관계

#### 1) 부부관계

전 인생주기를 거쳐 가족의 중심은 부부관계에 있으며 부부 하위체계와 자녀 하위체계간에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기능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년기 부부관계는 적어도 학문적 시각에서는 실종된 것 같다. 지난 16년간 5개 학회지에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다룬 논문은 한 편도 없다.

박충선(1991)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남자 노인의 경우 10명중 6명이 부인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10명중 1명만이 아들이 가장 가깝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남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1명만이 남편이 가장 가깝고, 10명중 5명은 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응

답하고 있어 배우자에 관한 남·녀 노인의 현격한 지각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중년기 혹은 신혼기 등에 속해있는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할 때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현재 자녀의 노부모부양능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노부모들도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노부부만의 단독 가구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경제력 및 건강과 함께 부부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따르는 가사역할 수행의 변화와 지속성, 의사결정, 부부관계의 변화와 지속성, 가족권력등에 관한 연구가 부부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노년기 부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되어야 한다. 이외에 노인의 홀로됨의 적응 과정이나 재혼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성인자녀-노부모 관계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는 주로 관계에 속해 있는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를 파악하였으며(김효정·김명자, 1995; 박충선, 1991; 장선주·서병숙, 1990; 신호식·서병숙, 1992; 신호식·서병숙, 1994; 최정혜·김태현, 1991), 그 다음이 성인자녀가 지각한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이다(김순기·유영주, 1994; 윤순덕·한경혜, 1994; 신일진·김태현, 1991; 조병은·신화용, 1992; 최정혜, 1994). 반면 관계의 양 당사자를 모두 포함한 연구는 제한적이다(유계숙, 1995; 이숙현·손승영, 1992; 조병은·박성연·유은희·이정순·류명희·이숙·김명희·최혜경·박용인; 1995).

노부모의 입장에서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을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박충선, 1991; 신호식·서병숙, 1994; 신호식·서병숙, 1992; 장선주·서병숙, 1990; 전길양·김태현, 1993; 최정혜·김태현, 1991).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결혼도 및 같

등의 정도는 노인의 거주지역, 경제수준, 부양형태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농촌의 노부모가 도시에 거주하는 노부모에 비해 자녀와의 결속도는 낮고 갈등의 정도는 높다(최정혜·김태현, 1991). 그러나 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노부모의 경제수준, 건강, 부양형태, 교육수준, 성별 등인 것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의 차이에 의한 것 이라기 보다는 노부모가 소유한 자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노부모에 비해 제한 자원의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노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통제감도 자녀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갈등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이다(최정혜·김태현, 1991).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의 특성은 성인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 아들과의 관계가 규범적 속성을 띄고 있는 데 반해 딸과의 관계는 정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장선주·서병숙, 1990). 그리고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는 과거의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녀가 청소년기에 속해 있을 때의 부모-자녀관계가 현재의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효정·김명자, 1995). 그러므로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처럼 역사가 긴 가족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가족 관계를 참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상호지지를 살펴보면 노모와 성인딸 사이에는 상호 호혜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며(전길양·김태현, 1993), 노부모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을 때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다(신효식·서병숙, 1992; 장선주·서병숙, 1990; 전길양·김태현, 1993). 따라서 노부모 시각에서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교환이론이 적용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된 성인자녀-노부모관계는 모두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회교환이론적 시각에서 접근된 것이 많다. 조병은·신화용(1992)은 우리나라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도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함을 검증하였으며, 모와의 관계에서 보상을 많이 느끼고, 비용을 적게 지각할 수록 모와의 관계의 질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윤순덕·한경혜(1994)도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혜택과 비용 모두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김순기·유영주(1994)도 암묵적으로 사회교환이론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모와 성인자녀가 주고받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원은 상호작용적인 특성이 있어 이들 지원이 노인에게 많이 제공될 때, 노부모도 이러한 지원을 자녀에게 많이 제공하여 호혜성의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자녀가 느끼는 노모와의 관계는 친모·시모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시모와의 상호지지 정도는 친정모와의 상호지지에 비하면 그 정도가 낮고, 시모에게는 자녀가 지원을 많이 하지만 친정모로부터는 지원을 많이 받는다(김순기·유영주, 1994). 뿐만 아니라 성인자녀는 친정모와의 관계에 비해 시모와의 관계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지각한다(김순기·유영주, 1994; 조병은·신화용, 1992). 이와 같이 성인자녀의 입장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교환이론이 적용 가능함을 지지하고 있다.

이 외에 신일진·김태현(1991)은 노부모가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자녀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사용할 때에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횡단적 연구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이숙현·손승영(1992)은 사회교환이론적 시각에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대상으로 혜택과 비용의 지각에 따르는 동거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부모 혜택형에서 노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며느리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고호혜균형과 자녀혜택형에서 노부모와 며느리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 사회교환이론의 공정(성)이론이 지지되고 있다. 유계숙(1995)과 조병은 외(1995)의 연구는 다양한 발달

주기상의 애착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딸의 결혼 및 출산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모기에 속해있는 딸이 신혼기나 미혼기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높다(유계숙, 1995). 이는 딸의 경우 부모기로의 전이가 어머니와의 경험의 공유를 통해 모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애착과 사회적 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며 성인 자녀와 모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성인자녀가 그 자신의 자녀와 맺는 애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애착의 세대간 연속성을 잘 보여준다(조병은외, 1995). 그러나 이 연구들 또한 횡단적 자료에 의한 분석이므로 가족 역할의 변화나 발달 단계에 따르는 모-자녀관계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고부갈등

고부갈등은 노년기 가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끌어온 주제이나 그 접근 방식 및 연구결과에 있어 많은 업적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고부갈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지와 면접법을 이용하여 며느리 혹은 시모의 입장에서 고부갈등의 원인이나(고정자, 1984; 김태현·한희선, 1990; 이정연, 1990), 고부갈등의 표출방법(김태현·한희선, 1990; 이정연, 1990), 혹은 이에 대한 가족원 특히 남편이나 아들의 태도(고정자, 1984; 김태현·한희선, 1990)를 묻는 기술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의 원인은 시모의 심한 꾸중이나 시누이와의 차별등 주로 시모의 행동이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 반면(고정자, 1984; 이정연, 1990), 시모는 며느리의 이기적 태도나 잘못에 의해 고부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고정자, 1984; 김태현·한희선, 1990) 고부갈등의 원인에 대해 양 당사자의 시각 차이가 크다. 그러나 시모와 며느리 모두 고부갈등이 부부관계를 포함한 제반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혜정·서병숙(1993)의 연구는 며느리가 고부갈

등의 원인을 자기의 행동 탓으로 규정할 때 며느리의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고부갈등에 관한 가족생활 교육이나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크다. 왜냐하면 고부갈등이라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때에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적용이 잘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갈등의 원인구명과 표출방법에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고부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갈등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갈등이론이나 사회교환이론 등과 같은 이론적 틀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 하에서 각 세대간에 따르는 고부갈등의 변화와 지속성을 밝혀 보려는 시도도 요구된다.

### 4) 손자녀-조부모 관계

손자녀-조부모 관계에 관한 연구는 모두 손자녀의 입장에서 조사되었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손자녀가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박경란, 1994; 서동인, 1989; 조병은·박의순, 1990). 이들 연구들은 손자녀-조부모 관계의 매개자로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손자녀들은 외가와 친가에 따라 조부모와의 관계를 다르게 지각하는데 외조부모와의 관계는 애정적 특성을, 친조부모와의 관계는 가계연속감을 중요시한다(서동인, 1989; 조병은·박의순, 1990). 그리고 손녀보다는 손자가 친조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계중심의 우리나라 가족특성이 손자녀-조부모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박경란, 1994). 이외에 조부모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과 건강이 손자녀-조부모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부모가 젊고 건강할 수록 손자녀-조부모관계가 좋다(박경란, 1994; 서동인, 1989).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기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부모 역할이나 손자녀-조부모 관계에 대해 조부모 자신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얼마나 비중을 두는지, 혹은 손자녀-조부모 관계가 조부모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

다. 따라서 앞으로는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손자녀-조부모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손자녀와 조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 4. 노년기 가족의 사회적 지원망

노년기가족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는 1990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망의 구조와 크기 등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지원망의 종류는 가족지원망, 친척지원망, 이웃지원망, 친구지원망 및 공적인 지원망등이며,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매우 작다(성규탁, 1990; 성규탁, 1991; 윤경아 외, 1992; 최정아·서병숙, 1992; 서병숙·김유정, 1993; 임선영·김태현, 1994; 윤희·한경혜, 1994).

가족은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이며 그 크기도 크다(성규탁, 1990, 1991; 최정아·서병숙, 1992; 임선영·김태현, 1994). 지원망의 크기는 노인의 성별이나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 보다,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에 비해 큰 지원망을 갖고 있고(성규탁, 1991), 농촌 노인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 보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갖고 있다(서병숙·김유정, 1993).

지원망의 특성은 지원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친척지원망 중 형제자매지원망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약 3명 정도의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으나 정서적 지원을 제외한 지원정도는 지극히 낮고, 특히 경제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윤희·한경혜, 1994; 임선영·김태현, 1994). 노인들은 이웃이나 친구와 상호 교환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성규탁, 1990).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웃과의 접촉이 가족과의 접촉보다 많으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서병숙·이현, 1995). 이는 도시와는 달리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이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조적으로 자녀와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웃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친척, 이웃, 친구지원망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이며, 가족지원망이 약한 경우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이 노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윤경아 외, 1992; 최정아·서병숙, 1992).

그러나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노인의 특성에 따르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거주지역, 자녀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노인의 배우자 생존유무,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등을 통제하거나 이것들에 따르는 차이점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망의 크기나 구조 뿐만 아니라 지원망의 질적인 특성도 밝혀져야 하고, 사회적 지원망이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5. 부양의식 및 행동과 부양스트레스

##### 1) 부양의식

부양의식은 부양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의 부양의식을 효행의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거나(성규탁, 1988, 1995), 기혼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려는 의지를 부양의식으로 파악하거나(허훈, 1988; 임춘희·정옥분, 1988; 김송애·조병은, 1991), 또는 부모 노후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을 부양의식의 한 척도로 파악하였다(서병숙, 1986).

효의식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도 이상적이며 보편적인 부양의식으로 규정하여 효의식의 변화를 살핀 성규탁(1989)은 효행자들의 부양의식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책임, 그리고 가족의 화합과 부모를 위한 희생을 바탕으로 동기화 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는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나타나는 가치 체계의 변화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련의 연구들은 높은 비율의 대학생이 부모부양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 젊은이의 부양의식이 상당히 높음을 밝히고 있다(서병숙,



1986; 허훈, 1988). 그러나 효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변화하고 있어 연령이 낮을 수록 효행의지를 덜 중요시하며,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부모를 위한 희생 정신을 중요시하는 경향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다(성규탁, 1995).

관습적으로나 통념적으로 부모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장남의 노부모 동거부양의식은 대부분 연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립능력이 상실되거나, 일정 연령에 다다르면 동거부양을 하겠다는 장남이 많다(허훈, 1988; 서병숙, 1986; 임춘희·정옥분, 1988). 그러나 동거부양의식에는 남성과 여성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미혼·기혼여성 모두 남성에 비해 동거부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서병숙, 1986; 허훈, 1988; 임춘희·정옥분, 1988). 이는 높은 비율의 미혼여성이 결혼 후 노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고, 부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부양자인 며느리는 노부모와 별거할 때 보다는 동거할 경우에 더 많은 부양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들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파악된다(이신숙·서병숙, 1993; 이신숙·서병숙, 1994; 송현애·이정덕, 1995; 민무숙, 1995).

노부모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양의식은 딸에 비해 아들이, 특히 장남의 경우 높다. 농촌의 딸이 며느리보다 부양의식이 높은 반면 도시여성의 경우 시가와 친가에 따른 부양의식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부양의식이 전반적으로 낮다. 한편 노부모의 연령이 많고, 건강상태가 나쁘며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자녀에게 의존적일수록 부양자의 부양의식은 높다. 또한 자녀가 자신에 대한 노부모의 의존성이 높다고 지각할 수록, 부모자녀간에 강한 애착감을 갖을수록, 그리고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덜 느낄수록 부양의식이 높다(서병숙, 1986; 허훈, 1988; 임춘희·정옥분, 1988; 송현애·김순옥, 1988).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부양의식은 전통적인 효의식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변화없이 계승되고 있다. 여성교육의 확대와 사회 진출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와 부부역할의 변화, 그리고 핵가족 또는 부부가족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노부모부양의식에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러나 여성의 취업증가, 젊은 가족 성원의 도시 집중, 직업에 따른 가족의 빈번한 이동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부양의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 부양행동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는 실질적인 부양행동이 며느리에 의해 수행되므로, 주로 며느리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김송애·조병은, 1991; 서병숙, 1986; 이신숙·서병숙, 1991; 허훈, 1988).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부양행동이 많으며, 특히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정서적 부양행동이 적극적이다(서병숙·이신숙, 1991). 며느리가 딸에 비해 부양행동을 많이 수행하고, 만며느리가 부양의무감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양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며, 노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부양행동이 많다. 반면 부양자녀의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 수록, 도시여성이 농촌 여성에 비해 부양부담감이나 부양의식이 낮아 부양행동도 적다(이신숙·서병숙, 1991; 김송애·조병은, 1991).

부양행동을 보면 정서적 부양을 가장 많이 하고, 서비스 부양과 경제적 부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부양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부양을 많이 하며, 출가한 딸에 의한 정서적 지지가 노인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김송애·조병은, 1991; 이신숙, 서병숙, 1991).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실질적인 부양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나 연구대상을 대부분 기혼 여성에 한정함으로써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체계가 갖는 상호적 관계규명이 미흡했으며, 관습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부양의 책임을 갖는 장남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노부모부양의 총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인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물론, 자녀의 성차와 출생순위에 따르는 다양한 가족관계와 연령 및 계층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3) 부양스트레스

부양스트레스는 성인 자녀가 노부모 부양 중 경험하는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지칭하며(이신숙·서병숙, 1994; 송현애·이정덕, 1995; 민무숙, 1995; 배옥현·홍상욱, 1995; 김명자·이윤정, 1995), 1990년대 이후에야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신숙·서병숙, 1995; 이영자·김태현, 1992).

부양스트레스는 부양자의 성별, 가족내 지위, 교육수준, 경제상태, 부양의식, 거주형태 및 노부모의 건강, 경제적 능력, 배우자 유무 등과 같은 부양자녀와 노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관계는 물론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양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며, 여성의 경우에도 며느리가 딸보다, 특히 외며느리나 만며느리가 부양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 그리고 며느리의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노부모와의 갈등이 많고 동거기간이 길수록, 노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노부모의 건강이 나쁠수록, 노부모의 배우자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며느리의 부양스트레스는 높다. 반면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에 대해 가족부양 지향적 태도를 지녀 부양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민무숙, 1995; 박경란, 1993; 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3; 한은주·김태현, 1994).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지원이 비슷하거나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때 부양스트레스는 낮아진다. 그러나 지원량의 호혜성보다는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의 질이 부양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리적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한다(민무숙, 1995; 송현애·이정덕, 1995). 그리고 남편과 시가 형제자매들의 도구적 지원은 며느리가 부양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도록 영향을 미치나, 친구·이웃의 정서적 지원은 부양스트레스를 낮추지 못한다(민무숙, 1995).

노부모의 건강이 부양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치매노인의

부양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인지적·기능적 장애로 인한 부양스트레스는 불가피하며, 장애 정도가 심각하거나 간병 시간이 길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높다(배옥현·홍상욱, 1991; 김태현·전길양, 1995). 그러나 장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양자는 부양상황에 적응하여 부양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정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가족원 특히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주부양수행자인 며느리의 부양스트레스를 낮춘다(김윤정·최혜경, 1993; 배옥현·홍상욱, 1995). 그러나 치매에 관한 부정확하고 주관적인 인식, 치매노인에 대한 분노와 좌절 및 죄책감 등의 상반된 감정이 부양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김태현·전길양, 1995).

## 6. 노년기의 적응과 스트레스

### 1) 노년기 적응

노년기 적응이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된 분야 중 하나이다. 이들 연구들은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건강, 경제적 자원, 배우자 유무, 주거형태 등의 다양한 변인과 적응이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김명자, 1982; 김효심·신효식, 1995; 박경란·오장욱·제미경, 1994; 조옥희·신효식·박옥임, 1991; 홍숙자, 1990).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이 가족부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가 노년기 적응이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거나(박성연·최혜경, 1985; 서병숙, 1989; 서미경, 1990; 조병은, 1990), 노인의 성격 특성과 적응이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김태현·유은희, 1987; 지연경·조병은, 1991; 김현진·이귀옥, 1992; 송대현·박한기, 1992). 이외에 노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역할 상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연구도 시행되었다(원혜중, 1994; 이춘희·옥선화, 199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적응이나 생활만족도를 살핀 연구들은 건강과 경제력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

도가 높으나 큰 차이는 없다. 연령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어 연령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고령일 수록 중복된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만족감이 저하된다는 의견과,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적응이 이루어져 만족감이 높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 교육수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치된 결론은 없지만 대체로 노인의 높은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 및 주거형태와 생활만족도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종교가 있는 경우 활동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유배우자 노인이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배우자가 있는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김명자, 1982; 홍숙자, 1990; 조옥희 외, 1991; 박경란 외, 1994; 김효심·신효식, 1995). 그러나 배우자 유무와 적응의 관련성은 배우자 상실이 심리적 충격과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가족원들과의 계속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므로 노년기 적응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김경신, 1983; 김명자, 1982; 김태현, 1986; 임미숙, 1985).

그러나 건강은 경제적 상태와 함께 노인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김태현·유은희, 1987; 김현진·이귀옥, 1992; 김효심·신효식, 1995; 박경란·제미경·오찬옥, 1995; 박성연·최혜경, 1985; 홍숙자, 1990).

가족관계와 노인의 적응이나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가족원들 간의 결속도나 생활교류도 혹은, 자녀의 노부모부양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김명자·강주령(1991)은 노년기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성인자녀 및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강한 유대감과 결속도를 가질 수록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인자녀나 손자녀와의 접촉이 많고,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으며, 가치

관이 일치할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조병은, 1990). 이는 노인 세대의 대부분이 부자관계를 가족관계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부부중심의 가족 구조로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인과 가족원들과의 물리적·정서적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록,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부양을 충분히 받을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며,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박성연·최혜경, 1985; 서병숙, 1989; 서혜경, 1990). 또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그들의 관계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관계로 인지할 때 생활만족도가 높다(조병은, 1990).

모선희(1991)는 한국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낮으며, 성인자녀에 의해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력이 높고 건강하며, 생활비 조달 능력이 있고, 주택을 소유하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원과의 결속도가 높은 경우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높으며, 높은 의사결정권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킨다(모선희, 1991; 송주은·문숙재, 1993; 여윤경·문숙재, 1992). 따라서 노인들이 소유한 제반자원이 많을 때 노인들의 의사결정권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도 높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성격 특성의 변화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적일 때 남·여 노인 모두 생활만족도가 높다(김태현·유은희, 1987). 그리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며, 가족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적극적 통합성을 소유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거나, 문제로부터 좌절감을 갖는 의존성 수동형과 늘 외롭고 자기 성취에 불만족 하는 성격인 실패 과장형 노인은 생활만족도가 낮다(김현진·이귀옥, 1992). 노인의 높은 자존심은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있고, 건강하며,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경제상태가 안정될 수록 노인의 자존심이 높아 생활만족도가 높다(송대현·박한기, 1992).

노년기 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의 가정내 역할 수행에 관한 것이다. 남자 노인의 역할활동과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이춘희·옥선화(1994)는 배우자 상실이나 은퇴 등의 역할 상실이 없는 노인의 경우에만 역할활동이 많을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 활동이론이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는 노년기 고독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적응을 유도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인다(원혜중, 1994). 전반적으로 활동이 많은 노인이 적응수준이 높으며,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밀활동과 단체활동이 많을 수록 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활동량은 매우 적고, 종교활동을 제외한 단체활동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서병숙·오경숙, 1990).

## 2) 노년기 고독감과 스트레스

노년기의 고독감과 소외감은 활동량의 변화, 건강상의 문제, 배우자 유무, 경제적 상황 및 가족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다. 교육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고독감이 크다. 사회활동 참여가 적을 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또 자녀들이 제공하는 용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이 심하다(송대현·윤가현, 1988; 박의연·유영주, 1989).

노년기에 재구성되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는 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기혼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더 많은 갈등을 지각하게 되어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노인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박의연·유영주, 1989; 송대현·윤가현, 1988; 윤가현, 1991). 반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양성성적인 성역할 정체를 갖고, 아노미 정도가 낮을수록 노인의 자아통합 정도가 높다(이정연, 1988).

노년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건강문제, 노후생활문제, 자녀와의 의견 충돌, 소외나 고독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인지한다고 밝히고 있다(최정혜, 1990). 특히 은퇴는 사

회적 지위의 하락과 소득의 상실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지연경·조병은, 1991).

노인의 스트레스는 성별, 배우자 유무, 건강, 경제적 생활수준, 거주형태, 사회활동 참여 등의 영향을 받는다. 성별이 스트레스 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배우자가 없는 남자 노인의 스트레스가 높다. 건강은 노인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으로 건강이 나쁠 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다.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혼자 사는 노인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기혼자녀와 동거할 때 스트레스가 높아 자녀와의 동거가 소외감을 낮추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가족원들 간의 갈등유발 기회가 많아 노인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때 노인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윤현희·김명자, 1994; 최정혜, 1990).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들이 보이는 대처 행동은 성별, 종교,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능력 등의 영향을 받는다. 남자 노인들은 주로 문제 재정립 등의 대처 행동을, 여자 노인은 종교적 도움에 의존하는 대처 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노인은 종교 의존적인 대처 행동을, 종교를 갖지 않는 노인은 문제 재정립의 적극적 대처경향이 두드러지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노인이 문제 재정립 등의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보인다(윤가현, 1991; 윤현희·김명자, 1994; 최정혜, 1990).

고독감과 소외감 및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세대의 노인에게 있어,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원들의 노력과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노인에 대한 가족원들의 이해와 사랑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 7. 노년기 가족의 복지

노년기가족을 위한 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노인 교육과 상담, 그리고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다. 노인 교육 분야는 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었다(옥선화·이형실·임춘희, 1994; 홍숙자, 1995; 홍숙자·이형실·전길양, 1994). 이러한 연구들은 부양에 따르는 어려움의 종류와 부양자가 요구하는 지식 및 정보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교육프로그램이 노인과 부양자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부양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한경란(1994)은 노인과 대학생을 통합한 세대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외에 김태현(1985)은 노인상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김현초(1980)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가족의 노인부양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동희·김정옥(1994)은 노인학대 문제를 고찰하였다.

노년기가족의 복지에 관한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 노인을 위한 교육이 노인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맞게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년기부부관계나 고부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은퇴준비교육, 은퇴후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및 홀로됨의 적응 등 연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 8. 기 타

이상에서 언급된 주제 이외에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령층에 따르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의 주거환경 욕구 등이 연구되었다.

김태현·손양숙(1984)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죽음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죽음

에 대한 준비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선자(1989)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령에 따라 파악하였는데 노인에 대한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특히 중년기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시각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밝혔다. 그리고 윤진·심재웅(1986)은 바람직한 결혼과 출산시기에 관해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차이를 조사하였는데 바람직한 결혼연령과 첫출산연령에 대해 노인이 훨씬 이르게 지각하고 있어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은희·최옥희(1991)는 단독가구 노인의 절반 이상이 가사조력자가 없이 생활하며, 노인의 연령이 적고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년기가족의 주거욕구를 보면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거욕구가 다르며(오찬숙·이연숙, 1992), 연령이 낮은 경우 단독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약국, 병원 등의 공공시설이 거주지역과 근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연숙·박정아·오찬숙, 1994).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은 화장실을 노인 공간에 따로 배치해 줄 것과 서비스 공간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이연숙·변혜령·오찬숙, 1994) 가족 형태와 특성에 따라 주거욕구의 중요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저소득계층의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주거형태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주거의 방향이 모색되었다(성병욱, 1992, 1994).

## IV. 결론 및 제언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노년기가족 연구는 많은 연구업적을 축적하였다. 특히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나 부양의식 및 부양스트레스, 그리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나 적응에 관한 연구는 괄목할 만한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이 있었으며, 한국 노년기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그러나 노년기의 중요한 생활사건인 은퇴나 배우자의 죽음, 조부모됨, 혹은 외병상태가 됨으로써 겪는 개인의 적응과정

이나 그에 따르는 가족관계의 변화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앞으로의 노년기가족 연구가 계속 발전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각 주제에 따른 기존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본문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노년기가족 연구 전반에 걸친 제언만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 동안의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한국 노년기가족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적용하고,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계층이론, 생애과정관점,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체제이론 그리고 여권론적 관점 등이 현재의 다양한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보편적인 법칙들을 도출해 내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노년기가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미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치우쳐 있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생활은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법률제도 등으로부터 구조적인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노년기가족과 사회구조와의 연계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가족의 경우 특히 복지제도나 고용구조 그리고 의료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가족 또한 계층에 따르는 차이가 확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년기가족 연구는 계층을 하나의 독립변수로서만 취급하여 교육수준이나 경제력에 따르는 차이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는 계층과 지역에 따르는 노년기가족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계층과 지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유사성과 독특성을 갖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하겠다.

넷째, 그 동안의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에 과다하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상

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수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이외에 노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경 가능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들 변화에 따르는 노인들의 삶의 변화도 함께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년기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는 성인자녀나 노부모 등 관계에 속해 있는 한 사람만이 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의 양 당사자나 다양한 가족성원을 포함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관계 혹은 가족전체가 되어 노년기 가족의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측정도구의 타당화 및 표준화 작업과 개념의 명료화 작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노년기가족 연구는 가족 분야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만들어진 개념과 측정도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나 측정도구는 우리의 정서나 사고체계, 혹은 현재 상황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념의 명료화 작업이나 측정도구의 표준화 작업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측정도구의 표준화 작업과 함께 확률적 표집에 의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연구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노년기가족 연구는 대부분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거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노인들을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지법을 통해서만 가족생활의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참여관찰법이나 비구조화된 면담법, 사례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년기가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덟째, 노년기가족의 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년기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연구대상자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행동양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가 노인에게 대해 전

통적 가치관과 강한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도 조사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은 전통적이나, 실제 행동은 이러한 가치관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노년기가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노인정책 혹은 가족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노년기가족에 대한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들을 복지체계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1) 지면상 분석논문의 목록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논문목록을 원하는분은 저자에게 연락바람.

\* 본 논문의 자료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박세경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 【참 고 문 헌】

- 1) 공세권 외 4인(1987). 한국가족 구조의 변화.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2)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30.